<h1>나 혼자만 레벨업-46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pe9e230e0d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6화</p>  
<p>꿀꺽, 진우의 목울대가 울렸다.</p>  
<p>어떤 퀘스트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건 역시 두려운 일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기대감이 더 컸다.</p>  
<p>마땅한 곳을 찾는 동안 잠깐잠깐 폰으로 전직에 대해 검색해 봤었다.</p>  
<p>-새로운 스킬.</p>  
<p>-성장 혜택.</p>  
<p>-해당 직업의 전용 무기.</p>  
<p>-연계 퀘스트.</p>  
<p>...등등.</p>  
<p>다 게임 이야기였지만, 전직에는 많은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이 정설이었다.</p>  
<p>'나는 그 전직 가능 레벨이 40이었던 거고.'</p>  
<p>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.</p>  
<p>불길한 게시물도 종종 눈에 띄었다.</p>  
<p>-직업을 잘못 택해서 고민입니다.</p>  
<p>-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다른 클래스 할걸, 씨X.</p>  
<p>-순간의 선택 미스로 정든 게임 접고 그만 일상으로 복귀합니다.</p>  
<p>-이거 캐삭이라도 해야 하나요?</p>  
<p>...뭐, 그건 어디까지나 게임 이야기니까.</p>  
<p>게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, 이때까지 무기는 거의 단검만 썼다. 스킬도 죄다 암살자 형으로만 얻었다.</p>  
<p>'단검 스킬이나 은신 같은 것들.'</p>  
<p>거기에 능력치까지 민첩과 근력에 집중 투자했으니 암살자 클래스 말고 다른 직업은 떠올리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생각난 김에 진우는 창고에서 단검 '카사카의 독니'를 불러왔다.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.</p>  
<p>'나한텐 이게 편해.'</p>  
<p>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.</p>  
<p>단검을 손에 쥔 채로 진우의 시선이 허공에 떠 있는 메시지로 옮겨졌다.</p>  
<p>'자, 그럼...'</p>  
<p>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도 했겠다, 진우는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서 메시지에 응답했다.</p>  
<p>[전직 퀘스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'수락.'</p>  
<p>퀘스트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동시에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전직 퀘스트를 수락하셨습니다.]</p>  
<p>[전직 퀘스트를 위해 던전을 생성합니다.]</p>  
<p>'던전을... 생성해?'</p>  
<p>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할 시간도 없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다.</p>  
<p>우우웅-</p>  
<p>눈앞에 나타난 검은 구멍.</p>  
<p>그게 시작이었다.</p>  
<p>우웅, 우우웅-</p>  
<p>처음에 콩만 했던 작은 구멍은 금방 동전만 해졌다가, 다시 배구공만 해지더니, 어느새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커졌다.</p>  
<p>'이건...?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퀘스트를 수락했으니 퀘스트 내용이 담겨 있는 다른 메시지 정도가 날아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...</p>  
<p>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게이트였다.</p>  
<p>'게이트가 만들어지다니...'</p>  
<p>여태까지 봐 왔던 게이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.</p>  
<p>단지 평소에 보던 것들 보다는 크기가 좀 작을 뿐.</p>  
<p>시스템은 어서 들어오라는 듯 메시지를 보내왔다.</p>  
<p>[게이트를 통해 던전에 입장하시오.]</p>  
<p>'침착하자.'</p>  
<p>진우는 마음을 가라앉혔다.</p>  
<p>그래.</p>  
<p>따지고 보면 열쇠를 통해 들어가나,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나 안에 던전이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.</p>  
<p>그냥 게이트가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장면을 봐서 놀랐을 뿐이었다.</p>  
<p>생성된 게이트에 들어가기만 해 봤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.</p>  
<p>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순간 갑작스런 의문이 들었다.</p>  
<p>'가만... 이렇게 만들어진 게이트에도 다른 헌터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?'</p>  
<p>하지만 실험해 볼 방법은 없었다.</p>  
<p>가까운 곳에 도움을 부탁할 만한 헌터도 없었고, 부른다고 여기까지 달려와 줄 헌터 또한 없...지는 않나?</p>  
<p>잠깐 유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'그랬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.'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진우를 재촉하듯 메시지가 다시 깜박였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게이트를 통해 던전에 입장하십시오.]</p>  
<p>기계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정신 차리자는 의미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짝짝 때렸다.</p>  
<p>'딴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냐.'</p>  
<p>성공하면 전직과 그에 따른 보상, 실패하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음.</p>  
<p>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다.</p>  
<p>"후우-."</p>  
<p>짧게 심호흡을 끝낸 뒤.</p>  
<p>진우는 '카사카의 독니'를 역수로 쥐고 게이트 안으로 뛰어들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[던전에 입장하였습니다.]</p>  
<p>'응?'</p>  
<p>잔뜩 긴장하고 들어왔는데, 놀랍도록 아무것도 없었다.</p>  
<p>평범한 동굴형 던전이었다.</p>  
<p>"그냥 똑같잖아...?"</p>  
<p>상급 던전에 들어가면 종종 이세계와 연결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,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우려하던 일은 없었다.</p>  
<p>대신 특이한 메시지가 하나 떴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현재 장소에서는 물약과 상점 사용이 금지되며, 레벨이 상승하더라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.]</p>  
<p>주변에 마수의 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진우가 단검을 창고에 도로 집어 넣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...쉽지 않겠네.'</p>  
<p>전직을 위한 곳이라 그런지 제약이 많았다.</p>  
<p>특히 깎여 나간 체력을 포션이나 레벨업으로 다시 채울 수 없다는 게 컸다.</p>  
<p>'데미지가 누적된다는 거다.'</p>  
<p>부상이라도 당하면 그걸로 끝.</p>  
<p>회복할 방법이 없으니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'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군.'</p>  
<p>진우는 메시지창을 닫았다.</p>  
<p>그리고 던전에 들어오면 늘 하던 것처럼 퇴로부터 점검했다.</p>  
<p>[전직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.]</p>  
<p>게이트 표면에 손이 닿자마자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힘을 줘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뻗었던 손을 거둬들였다.</p>  
<p>'입구도 막혔고.'</p>  
<p>등급 미상, 회복 불가, 퇴로 없음.</p>  
<p>이번 던전은 리스크가 무척 컸다.</p>  
<p>웬만큼 담이 큰 헌터도 이런 곳을 활보하고 다니진 않으리라.</p>  
<p>'하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.'</p>  
<p>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.</p>  
<p>이건 경험을 통해 배웠다.</p>  
<p>제약이 많아서 공략이 힘들다면 그만큼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?</p>  
<p>확인하는 방법은 하나.</p>  
<p>'가 보면 알겠지.'</p>  
<p>진우는 한걸음 내디뎠다.</p>  
<p>시선을 앞으로 향하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 동물 통로가 한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근처에 마수는 없는 듯했다.</p>  
<p>'아니, 시스템의 영역 안에 있으니 마수가 아니라 몬스터라고 해야 하나?'</p>  
<p>둘 다 괴물이란 점에서 똑같긴 해도.</p>  
<p>아무튼 그거 말고도 차이점이 하나 더 있었다.</p>  
<p>동굴 벽면에 횃불이 일렬로 촘촘히 걸려 있었다.</p>  
<p>'야광석 대신 횃불이라.'</p>  
<p>하지만 횃불은 그리 효율 좋은 조명이 아니다.</p>  
<p>아무리 많이 배치되어 있어도 주위를 전부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.</p>  
<p>때문에 드문드문 그림자가 남았다.</p>  
<p>고오오오-</p>  
<p>음영과 정적이 뒤섞여 기존의 던전보다 훨씬 더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.</p>  
<p>'시야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...'</p>  
<p>기분상의 문제라고 할까.</p>  
<p>진우는 가장 가까운 횃불 하나를 뽑아 들었다.</p>  
<p>횃불을 내밀자 앞이 조금 더 밝아졌다.</p>  
<p>'확실히 이쪽이 더 낫네.'</p>  
<p>진우가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잠깐 뒤를 돌아봤던 진우는 횃불을 앞세우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얼마나 걸었을까?</p>  
<p>한참을 가다 보니 모퉁이를 도는 곳이 나왔다.</p>  
<p>모퉁이 안쪽에서 여러 개의 기척이 느껴졌다.</p>  
<p>'올 게 왔나.'</p>  
<p>진우는 조심스레 횃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일어섰다.</p>  
<p>스르르.</p>  
<p>오른손엔 어느새 횃불 대신 단검이 들렸다.</p>  
<p>은신으로 후딱 해치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, 은신 스킬이 잡아먹는 마나를 떠올리곤 그만뒀다.</p>  
<p>여기선 잃은 마나를 포션으로 다시 채울 수 없으니까.</p>  
<p>함부로 마나를 써 대다간 진짜 필요한 순간에 스킬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.</p>  
<p>'...이리로 오고 있다.'</p>  
<p>진우는 벽에 딱 붙은 채로 모퉁이 너머의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.</p>  
<p>철그럭, 철그럭.</p>  
<p>놈이 걸을 때마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.</p>  
<p>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.</p>  
<p>철그럭, 철그럭.</p>  
<p>생소한 소음에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사슬 무기라도 들고 있나?'</p>  
<p>궁금했지만 조바심 낼 필요는 없었다.</p>  
<p>어차피 잠시 후면 확인이 가능하니까.</p>  
<p>'5, 4, 3.'</p>  
<p>진우는 단검을 역수로 쥐고 호흡을 멈추었다.</p>  
<p>숨소리가 새는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였다.</p>  
<p>'2, 1.'</p>  
<p>철그럭, 철그럭.</p>  
<p>드디어 놈의 그림자가 나타났다.</p>  
<p>'...0.'</p>  
<p>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, 놈이 막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진우는 놈의 옆 목을 노렸다.</p>  
<p>캉!</p>  
<p>쇠가 부딪치는 소리.</p>  
<p>칼은 박히지 않았다.</p>  
<p>'갑옷?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놈'의 정체를 확인한 진우는 급히 뒤로 빠졌다.</p>  
<p>"사람?"</p>  
<p>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였다.</p>  
<p>얼굴은 투구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러 봤다.</p>  
<p>"어이!"</p>  
<p>그런데 기사는 일언반구도 없이 진우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왔다.</p>  
<p>쿵, 쿵, 쿵!</p>  
<p>맹렬히 돌격해 온 기사가 숄더 어택을 날렸으나 진우는 가볍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흘려 보냈다.</p>  
<p>기사는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뒤쪽으로 한참을 달려가다 간신히 멈춰섰다.</p>  
<p>'사람은 아닌가?'</p>  
<p>가까이서 다시 한 번 봤더니 알 수 있었다.</p>  
<p>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존재해야 할 심장의 박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.</p>  
<p>인간은 아닌 듯했다.</p>  
<p>어디서도 본 적 없는 타입의 마수, 아니 몬스터였다.</p>  
<p>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한 몬스터라니.</p>  
<p>'이래서야...'</p>  
<p>마치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 않은가.</p>  
<p>스르릉!</p>  
<p>기사는 돌아서며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았다.</p>  
<p>진우가 그러한 것처럼 기사도 진우를 살려 보낼 생각이 없는 듯했다.</p>  
<p>서로의 적의를 확인한 진우의 눈빛이 한층 더 예리해졌다.</p>  
<p>'질주!'</p>  
<p>[이동속도가 40% 증가합니다.]</p>  
<p>선수필승!</p>  
<p>놈이 달려들기 전에 진우가 먼저 뛰어들었다.</p>  
<p>부웅!</p>  
<p>기사가 급하게 휘두르는 장검을 피한 진우는 갑옷 여기저기를 단검으로 찔렀다.</p>  
<p>캉! 캉!</p>  
<p>그러나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다.</p>  
<p>'장갑이 두꺼워.'</p>  
<p>그냥 두껍기만 한 게 아니라 표면이 미끄럽기까지 해서 정타를 넣어도 날이 박히지 않고 미끄러지기 일쑤였다.</p>  
<p>그때 기사가 검을 일자로 크게 그었다.</p>  
<p>부웅!</p>  
<p>진우는 머리를 숙여 피했다.</p>  
<p>검날이 진우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동작이 큰 만큼 빈틈 역시 컸다.</p>  
<p>다시 찾아온 기회!</p>  
<p>기사에게 접근한 진우는 역수로 쥔 단검에 온 힘을 실었다.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콰직!</p>  
<p>단검 끝이 갑옷을 뚫고 들어갔다.</p>  
<p>'통했나?'</p>  
<p>하지만 별 타격이 없었는지 기사는 옆구리에 단검이 박혀 있든, 말든 검을 수직으로 내려쳤다.</p>  
<p>쉬익!</p>  
<p>진우는 몸을 뒤로 날렸다.</p>  
<p>캉!</p>  
<p>검이 돌바닥을 때리자 불똥이 튀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세를 추슬렀다. 놈의 옆구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단검이 박혀 있었다.</p>  
<p>쯧.</p>  
<p>진우가 혀끝을 찼다.</p>  
<p>'그리 센 놈은 아니야.'</p>  
<p>그게 솔직한 평가였다.</p>  
<p>놈은 갑옷 때문인지 행동이 굼뜨고, 공격 패턴도 무척이나 단조로웠다.</p>  
<p>다만 날붙이에 대한 면역이 유달리 강할 뿐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.</p>  
<p>'장갑이 두꺼워서 날붙이가 통하지 않는 적이라면 이미 상대해본 적 있다.'</p>  
<p>여유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.</p>  
<p>마력이 담겨 있는 강철검을 박치기 한방에 깨부셨던 보스몹 '푸른 독니 카사카.'</p>  
<p>그 커다란 구렁이를 제압했던 경험이 있었다.</p>  
<p>'카사카에 비하면 저 녀석은 뭐...'</p>  
<p>나쁘지 않은 기억이라 그런지 진우의 입가에 슬쩍 미소가 걸렸다.</p>  
<p>쿵, 쿵, 쿵!</p>  
<p>기사는 또 갑옷을 믿고 무식하게 돌진해 왔다.</p>  
<p>'거봐. 역시 단순하다니까.'</p>  
<p>진우는 기사의 어깨 공격을 쉽게 피하고, 놈의 뒤로 돌아가 팔뚝으로 목을 조였다.</p>  
<p>우드득!</p>  
<p>물론 목 부분도 갑옷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숨이 막힌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.</p>  
<p>드드드득!</p>  
<p>진우의 팔뚝이 굵어지며 힘줄이 돋아났다.</p>  
<p>진우는 기사의 목을 조르려는 게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.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콰직!</p>  
<p>끔찍한 소리를 내며 투구가 뽑혀나갔다.</p>  
<p>100을 넘어선 근력 스탯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.</p>  
<p>'됐다!'</p>  
<p>머리와 목이 분리된 기사는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.</p>  
<p>쿵!</p>  
<p>[기사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싸움의 종료를 알리는 담백한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기사의 갑옷 쪽에서 아이템을 상징하는 빛이 반짝거렸으나 진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.</p>  
<p>'뭐야?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?'</p>  
<p>손에 들린 투구가 비어있었다.</p>  
<p>혹시나 해서 갑옷 쪽을 살펴봤지만, 마찬가지로 갑옷 안도 비어 있었다.</p>  
<p>'그럼 저절로 움직이는 갑옷과 싸우고 있었던 건가?'</p>  
<p>그러한 결론에 다다랐을 때, 모퉁이 저편에서 두 명의 기사가 더 튀어나왔다.</p>  
<p>뒤늦게 싸움이 벌어진 걸 알아챈 모양이었다.</p>  
<p>철그럭, 철그럭.</p>  
<p>진우를 발견한 기사들, 아니 갑옷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옆구리에 찬 검을 뽑아 들었다.</p>  
<p>스르릉-</p>  
<p>스르릉-</p>  
<p>진우는 들고 있던 투구를 뒤로 던져버리고 목과 어깨를 풀었다.</p>  
<p>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.</p>  
<p>'여기서부터 시작인 건가?'</p>  
<p>쿵, 쿵, 쿵, 쿵!</p>  
<p>진우는 달려오는 기사들을 마주 보면서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던전 공략의 첫걸음은 아주 순조로웠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